"北 불상 조성자, 한반도 중·남부 佛母"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北 조선후기 불상 분석해

北 공식 인정 사찰 총 59곳
27곳에 192점 불상 봉안돼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이운
양식 비교 통해 僧匠 추론
중 · 남부 활동 장인 작품 많아




평양 동금강암 목조여래좌상(사진 왼쪽)과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조여래좌상(사진 오른쪽)의 모습. 도식화된 옷 주름 표현과 하단 연봉우리를 통해 조선후기 승려장인 봉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북한 소재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교조각에 대한 개괄적 연구가 발표됐다. 그간 북한불교 미술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임란 이후 집중적으로 불사가 이뤄진 조선후기 조성 북한 지역 불교조각을 집중 조명한 연구 사례도 찾기 어려워 주목된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9월 20일 서울 법련사 교육관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보경)이 개최한 제132차 정기월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북한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를 통해 북한 사찰에 봉안된 불상들의 양식, 연원, 조성작가 등을 분석 · 추론했다.

최선일 위원은 지난 2011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간행한 〈북한의 전통사찰〉(총 10권)을 중심으로 불교조각 양식을 분석하고, 일제강점기 재산대장을 통해 불상의 이운 여부를 살폈다. 또한 남한의 조선 후기 기년명 불상들과 북한 동일 시기 불상들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조성 승려 장인들을 추론했다.

최선일 위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찰은 총 59곳이며, 폐사지는 5곳이다. 이중 27개 사찰에 192점의 불교조각이 봉안돼 있으며, 이중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11곳에 38점이다.

하지만, 이들 불상들은 대부분 원조성처가 아닌 한국전쟁 이후 이운 · 봉안됐다는 게 최선일 위원의 분석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사찰재산대장을 대조한 최선일 위원은 "평양특별시에 소재한 동금강암은 1920~30년대까지만 해도 석조아미타불, 석조관음보살, 석조독성불, 석조미륵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목조여래좌상만이 봉안돼 있다"면서 "현재 불상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 이후 이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평안북도 보현사, 함경북도 개심사, 함경남도 용흥사, 황해남도 월정사, 황해북도 성불사 등에 봉안된 불상들도 일제강점기 재산대장에 기록된 목록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선일 위원은 남한 지역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들을 비교하고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조선후기 불상들은 한반도 중 · 남부에서 활동했던 당시 승려 장인들에 의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최선일 위원에 따르면 이들 불상은 17세기 전반의 현진 계보, 17세기 후반의 영철과 금문의 계보 작품들이다. 또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진열이나 상정 · 봉현이 제작한 불상들도 확인된다.

실제 평양 동금강암 목조여래좌상은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조여래좌상과 비교한 최선일 위원은 "도식화된 옷주름 표현이나 하단 연봉오리 처리 등이 1760~80년대 활동한 상정의 계보를 이은 봉현이 제작한 불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일 위원은 "조선 후기 불교건축과 불교조각 및 불교회화 등을 만든 주도세력은 한반도 중부와 남쪽에서 활동한 승려 장인들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1790년 화성 용주사 불사를 진행한 스님들이 주로 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 장인이라는 문헌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행 사상, 인문 · 종교학으로 접근하다

한마음과학원, 9월 28일 안양본원서 학술대회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인문학 · 종교학 · 과학 등을 기반해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오는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강당에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4개 섹션으로 이뤄지는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사상을 제반 학문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발표된다.

대행 사상의 인문학적 접근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주인공관법 교수학습모형' 개발과 학교현장 적용 방안 탐색(안정현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과 대행선사의 젠더적/젠더초월적 특성과 젠더 관련 법문(박소진 신한대 교수)이 발표되며, 두 번째 섹션에서는 올해 하반기 박사학위를 받은 혜교 스님이 자신의 학위 논문 '오공의 한마음'을 소개한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대행 사상에 대한 종교학적 접근이 이뤄진다. 독일 본 대학의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교수가 '물질 세계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서 받은 영감과 고찰'을 김재영 서강대 교수가 '대행선사의 삶과 저술에 축적되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각각 발표한다.

대행 사상의 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섹션에서는 마르시 미들브룩스(Marcie Middlebrooks) 타이완 국립 중산대학 교수가 '인류학, 인류세 이상한 친족 만들기, 크툴루세 - 대행선사의 법문과의 연관성탐구'를, 한스 조르그 에플(Hans-Jorg Epple)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 의학박사가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상과 의학'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청동 스님(동국대 한국불교학연구소),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청강 스님(동국대 선연구소), 김용표 명예교수(동국대), 청고 스님(국제문화원), 안영우 원장(가정의학전문의)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원효와 불교사상들의 접점은

동국대 세불연, 9월 28일 제16차 학술대회

원효 스님(617~686)과 다른 불교 사상가들의 접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은 9월 28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분황 원효와 불교사상가들의 만남과 대화 IV'를 주제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효 스님과 승랑 · 혜균 · 원측 · 의상 · 지눌 스님의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제자로는 김영미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외래교수, 조윤경 안동대 동양철학과 교수,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박보람 충북대 철학과 교수,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논평자로는 이지향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원, 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조윤호 전남대 철학과 교수, 고승학 금강대 불교학과 교수, 정영식 성균관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38곳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문화재청 내년 사업처 선정… 생생문화재 등 386선

내년에는 전통산사 38곳에서 산사의 성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 38선 △'문화재야행' 36선 △'생생문화재' 159선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114선 △'고택 · 종갓집 활용' 39선 총 386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 공연 · 답사 등으로 향유하는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총 5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38건이 선정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남원 실상사의 '실상사, 천년의 향기' △논산 쌍계사의 '쌍계 마바시(마음을 바꾸는 시간)' △나주 불회사의 '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 △제주 선덕사의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 등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내 곳곳의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총 214건의 신청 중 159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1~2년 차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육성형'이 72건(45%), 3~5년 차 '집중육성형' 54건(34%), 6년 차 이상인 '지속발전형'이 33건(21%)이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57건의 공모사업 중 16개 시 · 도의 36개 사업이 선정됐다.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행사.

올해 공모부터 신설된 고택 · 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 · 종갓집의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충남 계룡시 사계고택, 경북 칠곡군 해은고택 등 전국 고택 39곳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8년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280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30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고, 2061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은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해 386개 행사를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활용 전문인력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백제불교미술' 모든 것 알고 싶다면

한국미술사硏 강좌 개설

백제불교미술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불교미술의 전개와 백제의 우아한 미술'을 주제로 제54회 박물관 대학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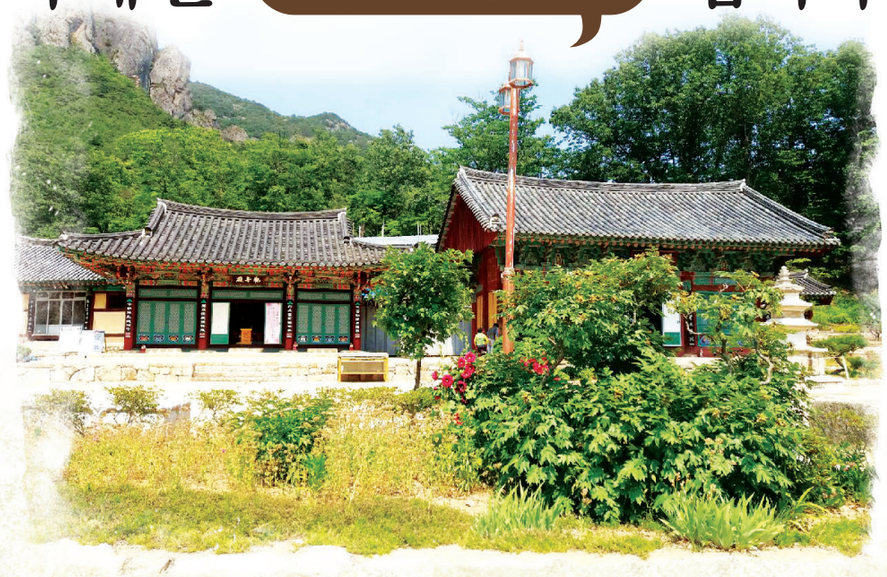
총 12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9월 23일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교의 수용과 고귀한 백제의 마애불'을 시작으로 백제불교미술 전반이 다뤄진다.

강사로는 이용진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사,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소재구 前 해양문화재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강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길에 있는 한국미술사연구소이다. 수강료는 17만원(학생 15만원)이다. (02)3673-3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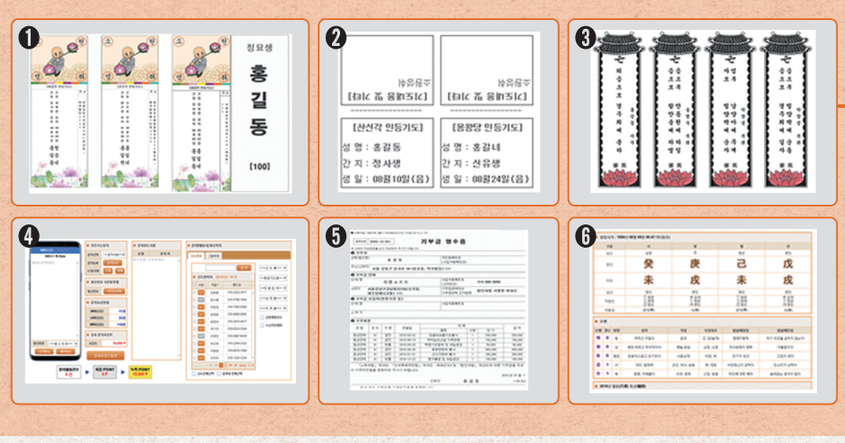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